

일본의 '역사'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한일관계사적 시각의 저술이 대부분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 국사학

시내 대형서점에 가보면 일본역사에 관련된 서적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일본역사서의 유형을 내용에 따라 크게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한국인이 집필한 일본사 자체에 대한 역사서, 둘째 외국인(일본인을 포함하여)이 저술한 일본사 관련서적을 한글로 번역한 것, 셋째 한일관계사적 시각에서 바라본 일본역사 관련서, 넷째 일본에서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일본역사 관련서적 등이 그것이다.

일본사 자체의 서적은 거의 없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출판되는 일본역사 관련서적들은 주로 두번째와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인의 진솔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일본역사 자체에 대한 서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현상이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세기 전반에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함으로써 일부러 일본을 외면하려는 심리가 만연한 데다가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잘 안다고 자만했기 때문이 아닌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 허상이란 게 밝혀지고, 또 극일을 위해서라도 일본을 제대로 알자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인 나름대로의 일본사 연구서가 가끔 선을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사이 반년 사이에 한국의 서점가에 나오는 일본역사에 관한 서적들은 종래와 같이 두번째와 세번째의 부류가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소개해보겠다.

《일본-그 국가·민족·국민》(윤건차 지음, 하중문·이애숙 옮김, 일일서각)은 제일동포의 시각에서 근대일본의 아이덴티티와 일본인론을 전개한 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현대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인 일본인·일본국민·일본민족이라는 개념의 생성·전개·변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과학

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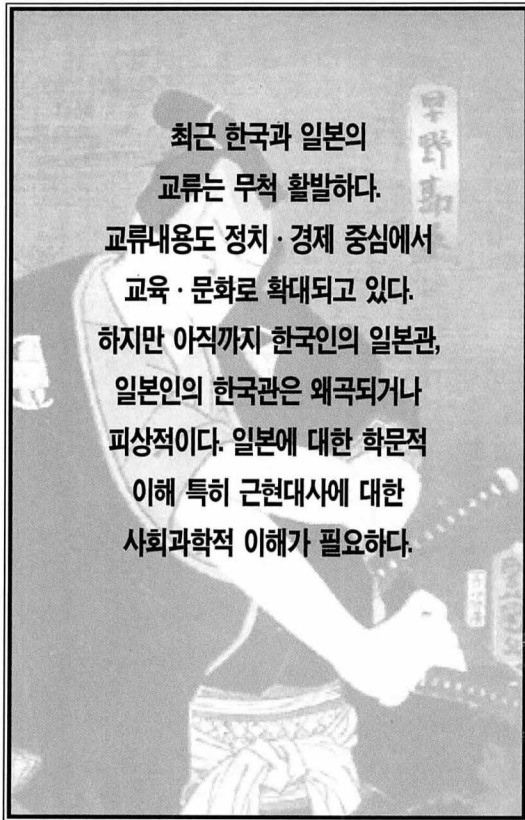
일본 근대사상사와 근대 한일관계사가 전공인 윤건차씨는 한국의 역사학계에도 잘 알려진 인물로서, 이미 《한국 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청사), 《현대 일본의 역사의식》(한길사) 등이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바 있다. 이번에

번역 출판된 《일본-그 국가·민족·국민》은 이 책들의 출간 이후에 저술한 몇권의 책에서 필자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논고를 발췌해서 한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윤건차씨의 일본국가론·일본민족론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일동포의 처지에서 근현대 일본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역사적 존재인 자기 자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인 아이덴티티의 탐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건차씨의 일본론에는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본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신랄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다.

근현대 일본의 이해 부족

최근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무척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정치·경제 중심에서 교육·문화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한국관은 적지 않은 모순을 가진 채 왜곡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본관 또한 너무나 피상



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일본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학문적 이해, 특히 근현대의 일본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건차씨의 《일본-그 국가·민족·국민》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약점을 보충해주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믿는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특히 상호이해의 문제는 낡고도 새로운 테마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치가들의 망언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처리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 등은 지금도 현안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까운 장래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일본의 논리-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정재정 지음, 현음사)은 한일 양국의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와 갈등을 최근에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기초해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공공연하게 대동아전쟁을 미화하는 정계·학계·시민단체·메스컴 등 우파 인사들의 역사관,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을 둘러싼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움직임, 역사교육의 새로운 개편방향,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의 저술 실태, 청일전쟁·러일전쟁을 보는 한일간의 시각 차이 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에 관통하고 있는 논리와 그

한계를 구명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만, 그 시선은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다. 즉 필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 나라는 개인과 개인의 경우와 달라서 서로 아무리 사이가 나쁘더라도 단 곳으로 이사갈 수가 없다. 그것이 운명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람들이 먼저 과거의 한일관계를 정확히 알고 서로 납득할 만한 역사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역사의식 내지 상호인식의 실태와 그것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 이 책을 일독하기를 권하고 싶다.

양국의 역사인식 이해되길

끝으로 위와 같은 무겁고 딱딱한 주제가 아니면서도 일본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쿄 이야기》(E. 사이덴스티커 지음, 허호 옮김, 이산)는 에도시대 이래 세계적 대도시로 발전해온 도쿄의 역사를 재미있게 서술하였다. 이 책은 정치적 측면보다는 대지진·화재·홍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도쿄의 인구이동, 거리 탄생, 유행 등장 등을 뼈대로 삼아 도쿄가 일찍부터 동창적인 문화를 형성해왔음을 부각시켰다. 이 책은 생활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역사학계에 자극을 주리라 믿는다.

《한국과 일본-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한일관계사학회 지음, 자작나무)는 소장학자 36명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일관계의 역사적 쟁점 54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장점은 한일 양국의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한일 양국의 최신 연구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한일 양국의 역사적 상호관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양국의 역사인식의 전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